

2027
고2 문학
미래엔

2027 고2 문학 미래엔 | 1(2)(2) 스노우맨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오늘은 「스노우맨」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볼까? 이 단원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상징적 소재의 의미와 작품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단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소재가 뭐라고 생각하니?



음... 제목이기도 한 '스노우맨'이나 주인공의 앞길을 막는 '눈' 아닐까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 소설에서 '눈'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란다. 남자가 출근할 수 없게 막는 장애물이자,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견뎌 내야 하는 삶의 무게와 심리적 압박감을 상징해. 그리고 제목인 '스노우맨'은 이런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지.



아하!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럼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유 대리'나 철가방을 든 '배달원'도 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건가요?

맞단다. 배달원은 폭설이 오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눈을 파내며 남자에게 짜장면을 배달했지? 이러한 배달원의 상황과 폭설이 와도 회사에 가야 하는 남자의 상황이 유사하지 않니? 두 인물 모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단다.

유 대리는 회사로 가는 도중에 눈에 파묻힌 인물이야.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도 받으나 결국 도태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이외에도 과장과 부장은 남자에게 회사에 출근하라고 재촉하는 것에서 경쟁 사회 체제를 대변하고 일상에 압박을 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군요. 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익명이나 직급으로만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이를 통해 **서열 중심의 경쟁 사회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남자가 배달시킨 짜장면 위에 놓여 있던 ‘쿠폰 한 장’도 기억에 남아요.

그 ‘쿠폰 한 장’은 걷기조차 힘든 극한적인 재난 상황과 대비되는 일상적 소재를 배치해서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역할**을 해. 이 외에도 편의점 앞 ‘눈사람’은 남자가 처한 **상황과 대조적인 소재**임을,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비극성을 강조하는 소재**인 것도 함께 확인해 두렴.



2027
고2 문학
미래엔

2027 고2 문학 미래엔 | 1(2)(2) 스노우맨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원인 '**남자**'(인물의 이름이 없음. → 일반적인 직장인을 대표함.)는 인사 발령에 기대를 걸고 더 이상 승진에서 밀려나면 곤란하다는 생각으로 출근을 하려고 하지만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초조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있다가 이튿날 길을 나선 남자는 눈 더미 속에서 찾은 샵 한 자루로 눈을 파내며 회사로 향한다. 상사의 출근 재촉에 초조함을 느끼던 남자는 유력한 과장 후보이자 일밖에 모르는 유 대리도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함을 느낀다.

그렇게 열성적이던 **유 대리**(이름 없이 직급으로만 명명 → 경쟁 사회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냄.)가, 출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속사정이야 어떻든 남자의 입장에서는 같이 출근할 동료가 남아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유 대리를 만나야 출근이 수월해질 텐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걸 보면 유 대리도 출근하기 위해서 눈을 파내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유 대리가 먼저 회사에 도착할까 봐(승진 경쟁 상대인 유 대리에게 뒤처질까 봐 걱정함.) 남자는 마음이 급해졌다.]**([]: '**남자는 유 대리가 자신보다 먼저 회사에 도착하여 승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바심을 낸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유 대리도 출근 전인 것을 알고 의아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낀다.

시내 쪽으로 나오자 **눈**(남자의 출근을 방해하는 대상이자 남자가 느끼는 부담감, 책임감을 상징함.)을 파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다. 유 대리가 사는 오피스텔은 남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지난봄에 대리들 몇이 거기 몰려가서 술을 마셨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오피스텔은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다. 이런 건 얼마나? 실평수는 어떻게 돼? 집을 둘러보며 다들 질문을 던졌다. 이런 데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남자는 술에 취해서 중얼거렸다. **그때도 유 대리는 빈 병이 늘어날 때마다 출근 걱정을 해서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유 대리는 과거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다음 날 출근을 걱정할 만큼 직장 생활에 얽매어 있던 인물이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심가라 그런지 주상 복합 오피스텔의 입구는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남자는 출입문 앞에서 호수를 누르고 유 대리가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뚜우, 뚜우 신호만 갈 뿐 응답이 없었다. 집에 있을 리가 없지. 남자는 유 대리가 멀리 가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통화 버튼을 여러 번 눌렀지만 유 대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남자로 하여금 출근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을 느끼게 함.)가 도착했다.]([]: '**과장은 폭설로 인해 걷기조차 힘든 상황임에도 남자에게 문자를 보내 출근을 독촉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삼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 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 남자가 회사로 출근하려고 눈을 치우다가 잠시 졸.

남자의 삼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삼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 있던 **중국집 스티커**(비현실적 사건을 일으키는 소재)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시각적 대비를 통해 허기짐을 표현함)은 너무나 선명했다.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삼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였다. 입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남자는 홀린 듯 휴대 전화를 꺼냈다.]([]: 감각적 표현 → 장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함.)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남자가 중국집에 전화를 건 것은 배달원에게 자신이 처한 험난한 출근길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다.’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를 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굼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중국집이 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여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 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주소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눈을 파내며 출근 중 → 위치가 정확하지 않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 근처에 ○ ○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거기요. 예, 배달됩니다.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배 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통화하면서 나는 말들은 모두 장난이고**(비현실적 사건) **배고픔만 진짜**(현실적 욕구)인 것 같았다.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푹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해 남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출근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흘러가는 추상적인 시간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남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우연히 중국집 스티커를 발견한 남자가 짜장면을 배달시킴.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다. 어디에서도 짜장면을 싣고 오는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짜장면이 정말 올까. 휴대 전화를 꺼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했다. 눈 때문에 출근도 못 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남자는 눈을 한 주먹 떠서 입에 쑤셔 넣었다가 도로 뱉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삼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깜빡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 배달원이 짜장면을 신속하게 가져다줌.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였다. 눈 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였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생계유지를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 ‘배달원은 악천후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눈을 뚫고 배달을 수행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비현실적인 사건에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 ‘비현실적이고 극한적인 재난 상황과 대비되는 일상적 소재를 배치하여 웃음을 유발한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짹짹으로 쪼개졌다.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렸다.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 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거라면 남자는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줄줄 흐르는 콧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젓가락질을 했고 그릇까지 먹어 치울 기세로 허겁지겁하다 젓가락을 한 짹 떨어뜨리기까지 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눈 속을 파헤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남은 짜장면은 젓가락 한 짹으로 긁어 먹었다. 그래도 양념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었다.

▶ 남자는 배달 온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음.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경쟁 사회 체제를 대변하며 남자를 압박하는 인물)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출근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피함.)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삭막한 경쟁 사회에서도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을 원함.)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남자가 처한 힘든 상황과 대조적인 눈사람의 모습)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웃는 것이 남자가 처한 현실에 맞지 않게 느껴짐.) 같았다.]([: ‘남자는 일상이 무너진 재난 상황 속에 세워져 있는 눈사람을 보며 괴리감을 느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힘든 상황에서도 억지로 웃어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짙은 새어 나왔다.**(어려운 현실을 애써 살아가는 현대인의 괴로움과 상처)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삼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일 미터쯤 떨어진 곳에 다시 삼을 꽂았다. 한 삼 떼내고 나자 또 삼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활 정보지 하나나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공룡이라도 묻혀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봤다. 그때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가느다란 목소리의 여자가 부르는 곡인데 멜로디가 익숙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벨 소리이긴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 전화의 진동이 울렸지만 남자는 무시해 버렸다. 음악 소리는 멈추었다가 눈을 파내자 다시 시작되었다. 아까와 같은 멜로디였고 눈을 파낼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삼을 움직였다. 손으로 눈을 쓸어 낸 뒤에야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유 대리)의 휴대 전화였고 **공교롭게도 뽀뽀하게 언 양복바지 안에 들어 있었다.**(묻힌 지 오래되었음.)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삼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판박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 낼 때처럼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언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다. 입에서는 입김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

처럼 문혀 있었다. 양복 웃옷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감각적인 묘사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함. '눈 더미 속에서 화석처럼 굳어 버린 인물의 참혹하고 비극적인 처지를 시각적으로 강조한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양손 다 눈을 그려쥐고 있어서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반신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쌓인 눈의 두께로 보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 남자가 눈 속에 사람이 파묻힌 것을 발견함.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 눈을 쓸어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경쟁 체제에서 노력하며 인정받던 유 대리도 결국 회사에 가지 못하고 도태됨.**) 이봐. 남자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봐! 유 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 대리의 전화기를 주워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남자는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이 유 대리임을 확인하자마자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 눈 속에, 유 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이 유 대리임을 알게 됨.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시간의 흐름**)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자**)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쏙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쉬고 싶음.**)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졸음에 눈이 감기는 남자의 시선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 열린 결말을 통해 독자에게 여운을 남김. '**감각적인 묘사를 활용하여 육체적 한계에 다다른 인물의 피로감과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몹시 지친 남자는 유 대리 옆에서 서서히 눈을 감음.

- 서유미, 「**스노우맨**」(**'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7
고2 문학
미래엔

2027 고2 문학 미래엔 | 1(2)(2) 스노우맨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스노우맨」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배경	• 시간적 배경: 현대 • 공간적 배경: 폭설이 내린 어느 [도시]
주제	[경쟁] 사회 속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삶의 [애환]
특징	①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직급]으로만 표현하여 서열 중심의 [경쟁] 사회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냄. ② [과장된] 상황 설정과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인이 느끼는 [압박]과 [부담감]을 형상화함. ③ [열린] [결말]로 마무리함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비판적] 인식을 극대화함.

2. 제목의 의미

편의점 앞 눈사람의 상황	남자의 상황
[일상]이 무너진 곳에 홀로 서서 [웃고] 있음.	눈이 많이 쌓였지만 [출근]하라는 압박에 못 이겨 출근하며 눈사람의 미소를 흉내 내어 봄.



제목 ‘스노우맨’은 경쟁 사회 속에서 [애]쓰며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함.

3. 작품 구성(작품 전체 기준)

발단	새해 첫 출근 날 [눈]이 너무 많이 쌓인 것을 발견하고 남자는 출근하지 않기로 함.
전개	남자는 출근에 대한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다 결국 출근길에 나섬.
위기	회사를 향해 나아가면서 쌓인 눈을 치우던 남자는 배고픔을 느끼고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음.
절정	계속 눈을 파헤치던 중 [휴대 전화 벨] 소리를 듣게 되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삼질을 하다가 사람을 발견함.
결말	남자는 눈에 파묻힌 사람이 [유 대리]임을 알게 되고, 점차 치쳐 가던 남자는 [유 대리] 옆에서 서서히 눈이 감김.

4. 남자와 배달원의 공통점

남자	배달원
폭설이 와도 [회사]에 가기 위해 눈을 파내며 [출근]해야 함.	폭설이 와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눈을 파내고 [배달]해야 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함.

5. 인물들의 행동과 인물 유형

남자	
인물의 행동	[눈]을 파면서 회사로 출근하고 있으나, 중간에 [지쳐서] 멈춘다.
인물의 유형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인물

유 대리	
인물의 행동	[눈]을 파며 회사로 가는 도중 눈에 [파묻힌다].
인물의 유형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도 받으려나 결국 [도태]되는 인물

과장, 부장	
인물의 행동	남자에게 회사에 빨리 [출근]하라고 [재촉]한다.
인물의 유형	[경쟁] 사회 체제를 대변하고 일상에 [압박]을 주는 인물

6. 남자가 겪는 갈등

심리적 갈등	
[회사]에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과 너무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 사이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	
경쟁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갈등	

TEST 1단계

1. 「스노우맨」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실 □□적
배경	• 시간적 배경: 현대 • 공간적 배경: 폭설이 내린 어느 □시
주제	□쟁 사회 속에서 □□인이 느끼는 삶의 □환
특징	① 인물의 □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급으로만 표현하여 서열 중심의 □쟁 사회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냄. ② □장된 상황 설정과 □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인이 느끼는 □박과 □□감을 형상화함. ③ □린 □말로 마무리함으로써 독자에게 □운을 남기고 □판□ 인식을 극대화함.

2. 제목의 의미

편의점 앞 눈사람의 상황	남자의 상황
□상이 무너진 곳에 홀로 서서 □고 있음.	눈이 많이 쌓였지만 □근하라는 압박에 못 이겨 출근하며 눈사람의 미소를 흉내 내어 봄.



제목 ‘스노우맨’은 경쟁 사회 속에서 □쓰며 살아가는 □□인을 상징함.

3. 작품 구성(작품 전체 기준)

발단	새해 첫 출근 날 □이 너무 많이 쌓인 것을 발견하고 남자는 출근하지 않기로 함.
전개	남자는 출근에 대한 상사의 □박에 불안감을 느끼다 결국 출근길에 나섬.
위기	회사를 향해 나아가면서 쌓인 눈을 치우던 남자는 배고픔을 느끼고 □장□을 배달시켜 먹음.
절정	계속 눈을 파헤치던 중 □대 □화 □소리를 듣게 되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삽질을 하다가 사람을 발견함.
결말	남자는 눈에 파묻힌 사람이 □□리임을 알게 되고, 점차 지쳐 가던 남자는 □□리 옆에서 서서히 눈이 감김.

4. 남자와 배달원의 공통점

남자	배달원
폭설이 와도 □사에 가기 위해 눈을 파내며 □근해야 함.	폭설이 와도 □계를 유지하기 위해 눈을 파내고 □달해야 함.



□계를 유지하기 위해 □들게 살아가는 □□인을 상징함.

5. 인물들의 행동과 인물 유형

남자	
인물의 행동	☐ 을 파면서 회사로 출근하고 있으나, 중간에 ☐ 쳐 ☐ 멈춘다.
인물의 유형	☐ 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 주어진 상황에 ☐ 응하기 위해 애쓰는 인물

유 대리	
인물의 행동	☐ 을 파며 회사로 가는 도중 눈에 ☐ 묻 ☐ 다.
인물의 유형	☐ 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도 받으나 결국 ☐ 태되는 인물

과장, 부장	
인물의 행동	남자에게 회사에 빨리 ☐ 근하라고 ☐ 촉한다.
인물의 유형	☐ 쟁 ☐ 회 체제를 대변하고 일상에 ☐ 박을 주는 인물

6. 남자가 겪는 갈등

☐ 리 ☐ 갈등
☐ 사에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과 너무 지쳐서 ☐ 고 싶은 마음 사이의 갈등
☐ 회와의 갈등
경쟁 사회 속에서 ☐ 정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갈등

TEST 2단계

1. 「스노우맨」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흥 인 비 표 조
배경	• 시간적 배경: 현대 • 공간적 배경: 폭설이 내린 어느 드 스
주제	ㄱ 조 사회 속에서 흥 드 오 이 느끼는 삶의 오 흥
특징	① 인물의 오 르 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않고 조 ㄱ 으로만 표현하여 서 열 중심의 ㄱ 조 사회의 모습을 효 과적으로 나타냄. ② ㄱ 조 된 상황 설정과 사 조 적 인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인이 느끼는 오 비 과 비 드 ㄱ 을 형상화함. ③ 오 르 ㄱ 모 로 마무리함으로 써 독자에게 오 오 을 남기고 비 표 조 인식을 극대화함.

2. 제목의 의미

편의점 앞 눈사람의 상황	남자의 상황
오 인 이 무너진 곳 에 홀로 서서 오 ㄱ 있음.	눈이 많이 쌓였지만 조 ㄱ 하라는 압박에 못 이겨 출근하며 눈사람 의 미소를 흉내 내어 봄.



제목 ‘스노우맨’은 경쟁 사회 속에서 오 쓰며
살아가는 흥 드 오 을 상징함.

3. 작품 구성(작품 전체 기준)

발단	새해 첫 출근 날 ㄴ 이 너무 많이 쌓인 것을 발견하고 남자는 출근하지 않기로 함.
전개	남자는 출근에 대한 상사의 오 비 불안감을 느끼다 결국 출근길에 나섬.
위기	회사를 향해 나아가면서 쌓인 눈을 치우 던 남자는 배고픔을 느끼고 쟈 조 모 을 배달시켜 먹음.
절정	계속 눈을 파헤치던 중 흥 드 조 흥 비 소리를 듣게 되고, 소리가 나는 곳 을 향해 삽질을 하다가 사람을 발견함.
결말	남자는 눈에 파묻힌 사람이 오 드 르 임을 알게 되고, 점차 지쳐 가던 남자는 오 드 르 옆에서 서서히 눈이 감 김.

4. 남자와 배달원의 공통점

남자	배달원
폭설이 와도 흥 인 에 가기 위해 눈을 파 내며 조 ㄱ 해야 함.	폭설이 와도 사 ㄱ 를 유지하기 위해 눈을 파내고 비 드 해야 함.



사 ㄱ 를 유지하기 위해 흥 드 게 살아가
는 흥 드 오 을 상징함.

5. 인물들의 행동과 인물 유형

남자	
인물의 행동	ㄴ을 파면서 회사로 출근하고 있으나, 중간에 ㅈ ㅈ ㅅ 멈춘다.
인물의 유형	ㄱ ㅈ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 주어진 상황에 ㅈ ㅅ 하기 위해 애쓰는 인물

	유 대리
인물의 행동	ㄴ을 파며 회사로 가는 도중 눈에 ㅍ ㅁ 흥다.
인물의 유형	ㄱ ㅈ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 해 노력하고 인정도 받으나 결국 ㄷ ㅌ되는 인물

과장, 부장	
인물의 행동	남자에게 회사에 빨리 하라고 한다.
인물의 유형	체제를 대변 하고 일상에 을 주는 인 물

6. 남자가 겪는 갈등

ㅅ ㄹ ㅈ 갈등
ㅎ ㅅ 에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과 너무 지쳐서 ㅅ ㄱ 싶은 마음 사이의 갈등
ㅅ ㅎ 와의 갈등
경쟁 사회 속에서 ㅀ ㅈ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갈등

O / X 문제

【1~10】 「스노우맨」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직급 등으로만 명명하여, 서열 중심인 경쟁 사회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X)

2. ‘눈’은 남자의 출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자, 현대인들이 겪는 삶의 압박과 부담감, 책임감을 상징한다. (O / X)

3. 짜장면과 함께 배달된 ‘쿠폰’은 삭막하고 참혹한 눈길의 비극적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는 소재이다. (O / X)

4. 폭설 속에서도 ‘신속 배달’이라고 쓰인 안전모를 쓰고 온 배달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일 처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을 보여준다.
..... (O / X)

5. 남자가 편의점 앞 눈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입 모양을 흉내 내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도 억지로 웃어야 하는 현대인의 애환을 보여준다. (O / X)

6. ‘검붉은색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라는 표현은 상황의 희극성을 강조한다. (O / X)

7. ‘스노우맨’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인간상을 상징한다. ... (O / X)

8. 남자는 유 대리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의아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O / X)

9. 사람들은 일밖에 모르는 유 대리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O / X)

10. 결말 부분에서 남자가 회사 쪽을 쳐다보는 것은 남자가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O / X)

1. O	2. O	3. X	4. O	5. O	6. X	7. X	8. O
9. O	10. O						

2027
고2 문학
미래엔

2027 고2 문학 미래엔 | 1(2)(2) 스노우맨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원인 '남자'는 인사 발령에 기대를 걸고 더 이상 승진에서 밀려나면 곤란하다는 생각으로 출근을 하려고 하지만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초조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있다가 이튿날 길을 나선 남자는 눈 더미 속에서 찾은 삼 한 자루로 눈을 파내며 회사로 향한다. 상사의 출근 재촉에 초조함을 느끼던 남자는 유력한 과장 후보이자 일밖에 모르는 유 대리도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함을 느낀다.

그렇게 열성적이던 유 대리가, 출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속사정이야 어떻든 남자의 입장에서는 같이 출근할 동료가 남아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유 대리를 만나야 출근이 수월해질 텐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걸 보면 유 대리도 출근하기 위해서 눈을 파내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유 대리가 먼저 회사에 도착할까 봐 남자는 마음이 급해졌다.

시내 쪽으로 나오자 눈을 파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다. 유 대리가 사는 오피스텔은 남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지난봄에 대리들 몇이 거기 몰려가서 술을 마셨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오피스텔은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다. 이런 건 얼마나? 실평수는 어떻게 돼? 집을 둘러보며 다들 질문을 던졌다. 이런 데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남자는 술에 취해서 중얼거렸다. 그때도 유 대리는 빈 병이 늘어날 때마다 출근 걱정을 해서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중심가라 그런지 주상 복합 오피스텔의 입구는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남자는 출입문 앞에서 호수를 누르고 유 대리가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뚜우, 뚜우 신호만 갈 뿐 응답이 없었다. 집에 있을 리가 없지. 남자는 유 대리가 멀리 가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통화 버튼을 여러 번 눌렀지만 유 대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삼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남자의 삼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삼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 있던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삼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였다. 입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남자는 홀린 듯 휴대 전화를 꺼냈다.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를 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 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주소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 근처에 ○○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거기요. 예, 배달됩니다.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배 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통화하면서 나눈 말들은 모두 장난이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았다.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툭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다. 어디에서도 짜장면을 싣고 오는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짜장면이 정말 올까. 휴대 전화를 꺼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했다. 눈 때문에 출근도 못 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남자는 눈을 한 주먹 떠서 입에 쑤셔 넣었다가 도로 뱉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삽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깜빡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 눈 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였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짹짹으로 쪼개졌다.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렸다.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 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거라면 남자는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줄줄 흐르는 콧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젓가락질을 했고 그릇까지 먹어 치울 기세로 허겁지겁하다 젓가락을 한 짹 떨어뜨리기까지 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눈 속을 파헤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남은 짜장면은 젓가락 한 짹으로 굵어 먹었다. 그래도 양념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었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서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찔끔 새어 나왔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샅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샅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일 미터쯤 떨어진 곳에 다시 샅을 꽂았다. 한 샅 떼내고 나자 또 샅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활 정보지 함이나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공룡이라도 묻혀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봤다. 그때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가느다란 목소리의 여자가 부르는 곡인데 멜로디가 익숙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벨 소리이긴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 전화의 진동이 울렸지만 남자는 무시해 버렸다. 음악 소리는 멈추었다가 눈을 파내자 다시 시작되었다. 아까와 같은 멜로디였고 눈을 파낼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샅을 움직였다. 손으로 눈을 쓸어 낸 뒤에야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 전화였고 공교롭게도 뽀뽀하게 언 양복바지 안에 들어 있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샅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판박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 낼 때처럼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언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다. 입에서는 입김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양복 웃옷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 양손 다 눈을 그려주고 있어서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반신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쌓인 눈의 두께로 봐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 눈을 쓸어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이봐. 남자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 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봐! 유 대리를 부

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유 대리의 전화기를 주워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 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쏙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 서유미, 「스노우맨」